

일동면 (一東面)

본래 영평현(永平縣) 조량면(助良面)이었으나 동면(東面)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영평현(永平縣)이 포천현(抱川縣)에 합병되어 포천군으로 승격될 때 동면(東面)이 일동면(一東面)과 이동면(二東面)으로 분할되어 일동면(一東面)이 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다시 포천군과 영평군이 분리되면서 영평군 일동면이 되었다. 1912년 행정구역상 영평군 일동면(一東面)으로 길명리(吉明里), 유동리(柳洞里), 기산리(機山里), 화대리(禾垈里), 사당리(祠堂里), 수입리(水入里), 산내지리(山內之里)등의 7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영평군이 또다시 포천군에 합병되면서포천군 동촌면(東村面)의 지현리(芝峴里) 일부를 병합하여 길명리(吉明里), 유동리(柳洞里), 기산리(機山里), 화대리(禾垈里), 수입리(水入里), 사직리(社稷里)의 6개리로 개편되고 포천군 일동면(一東面)이 되었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국토가 분단되어 38선 이북 지역인 수입리(水入里) 일부가 북한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이 이양 되었다.

1. 길명리(吉明里)

가. 연혁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길명리(吉明里)이다. 길명리(吉明里)는 약 450여년 전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선생이 자리 잡은 곳으로 청주양씨(淸州楊氏)의 집성촌이 이루어져왔다. 이 부락은 상서롭고 길한 일만을 누리라는 뜻에서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선생이 길명(吉明)이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길명리(吉明里) 일부를 내촌면(內村面) 지현리(芝峴里)에 떼어주고 포천군(抱川郡) 동촌면(東村面) 지현리(芝峴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길명리(吉明里)라 하고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 편입하였다.

나. 지명 유래

마을

꼭두바위, 복두바위, 우는바위

장자골 맞은편에 있는 마을 이름이고 바위 이름이다. 이 바위 모양이 사람이 쓰는 복두건처럼 생겨서 복두바위 또는 꼭두바위가 되었으며 또한 이 바위 근처에서 말을 하면 크게 메아리쳐 다시 돌아온다고 하여 우는바위라고도 부른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꼭두바위라 부른다.



꼭두바위

가재물

시궁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재가 사는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

로 개설로 인하여 지금은 마을도 우물도 다 없어졌다.

■능말, 능안, 벌능안

금주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문화류씨(文化柳氏)로 영의정을 지낸 류전(柳堧) 선생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등근말, 두리동, 윗말

정자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두리봉 밑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바자골, 암자동, 암성동

정자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바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바자골은 바위자골의 준말이라고 한다.

■사기점(沙器店), 들바위(野岩)

장방모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사기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점이라 부르게 되었고 들에 큰 너러바위가 있는 마을이어서 들바위 또는 야암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시궁개(矢弓溪), 시궁포(矢弓浦)

가재물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길명천 양쪽에 있는 마을로 길명천이 활등처럼 휘어 돌아 흐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약 350여 년 전 청주 양씨가 자리잡아 집성촌을 이룬 마을이다.

■안말

가재물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재물, 시궁개, 아랫말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약 450여 년 전에 봉래 양사언 선생이 자리를 잡으신 이래 청주 양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고 뒷산에는 봉래 선생의 묘가 있다.

■양지편

정자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쪽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방모루, 장방모퉁이, 장방우

꼭두바위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크고 긴 모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자골, 장자동

정자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장자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정자골

바자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정자나무가 있었고 또한 정자도 있었기 때문에 정자골이라 부른다.

■ 봉래골(蓬萊洞), 봉골래골, 봉동(鳳洞)

정자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봉래 양사언 선생이 자리 잡은 마을이어서 봉래동 또는 봉골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이 곳은 골이 깊고 숲이 우거져 밤이면 부엉이 울음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봉동이라고도 부른다.

■ 웃터, 윗터

시궁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길명천의 상류가 되므로 지형상 위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 샛번지, 새번지(新番地)

가재물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모래밭과 덩불이 무성했던 곳인데 언제부터인지 인가가 한집한집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샛번지 또는 새번지라 부르게 되었다.

들

■ 들바위들

들바위가 있는 들이다. 들바위가 있는 들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 벌논자리

시궁개 남쪽에 있는 논 벌이다. 큰 논 벌이어서 벌논자리라 부르게 되었다.

산

■곰내미골

맹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곰이 살았다고 하여 곰내미골이라 부른다.

■너구리박골

정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너구리가 살던 바위가 있어서 너구리박골이라 부르고 있다.

■너른골

안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넓은 골짜기이어서 너른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늘발골

너른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있는 농토가 토질이 척박하여 곡식을 심어도 수확이 별로 없고 우장을 만드는 늘푸만이 잡초와 함께 우거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정자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어서 뒷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맹개골

샛번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위봉

바자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바위가 많아서 바위봉이라 부르게 되었다.

■병무개

정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병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봉화뜰

두리동 남쪽에 있는 산이다. 옛날에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 송이재, 속재

셋번지 북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송이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쇠경골

봉화뚝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엄씨라는 맹인이 경을 잃으러 다니면서 이곳에 살았다고 하여 쇠경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소경골의 변음인 듯하다.

■ 안장바위골

안장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안장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연못골

장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연못이 있었다고 하여 연못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오리수골

장자골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리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용바윗골

늘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바위가 있기 때문에 용바윗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절골

셋번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골이 되었다고 한다.

■ 좁은골

너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좁아서 좁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천장골, 하안고개

안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위에는 나무가 무성하나 이곳은 흰 바위가 많고 나무가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풀무골

천장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농토를 개간해도 토질이 척박하고 돌이 많아

서 곡식은 안되고 잡풀만 무성하다 하여 불리우는 이름이다.

■ 화전골

말고개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화전밭을 일구어서 경작을 하였기 때문에 화전골이라 부르고 있다.

■ 삼태골

말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이 삼태기처럼 생겼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변댕이

말고개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으로 쏙 들어가있는 넓고 평평한 변덩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배나무골

호암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많아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 방아터골

안말 서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로 옛날에 연자방아간이 여러개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짜기 남쪽 산 기슭에는 봉래 양사언 선생의 사당인 길명사(吉明祠)가 있다.

■ 설통안

바자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이 골짜기 안에 있는 큰 바위 주위에 꼴을 채취하기 위하여 벌통을 놓았다고 하여 설통안이라 부르게 되었다.

■ 애충골

서가마골 너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애충이 많아서 애충골이 되었다고 한다.

■ 서개미골, 서가마골

바자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숫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매봉재

바자골 서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봉우리 모양이 매가 앉아서 아래쪽을 응시하는 형상이어서 매봉재가 되었다고 한다.

■재방골

웃터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좁게 꺾인 입구 외에는 높은 산등으로 둘러쌓여 하늘만 보인다는 뜻으로 불리는 명칭이다.

■향나무골

바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엄청나게 큰 향나무가 수 십그루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깊은골, 옷나무골

바자골 동쪽에 있는 골이 깊은 골짜기이다. 골이 깊다고 하여 깊은골이라 부르며 또한 큰 옷나무가 많다고 하여 옷나무골이라고도 부른다.

개울, 보

■안말개울

안말 앞에 있는 개울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기타

■길명고개, 이피리고개, 예필현(洑必峴), 생이고개

셋번지에서 길고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길명리 이(里)명을 따서 길명고개가 되었고 이 고개 입구에 마르지 않는 유명한 샘물이 있어서 예필현이라 하였는데 변음되어 이피리고개 또는 예피리고개가 되었으며 또한 이 고개 정상에서 생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따서 생이고개로도 부르고 있다.



이피리고개

■가재우물

가재물에 있는 우물이다. 가재가 살고 있는 우물이어서 가재우물이 되었다. 도로 개설로 인하여 매몰되었다.

■길명교

가재물과 셋번지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길명리 이(里)명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들바위(野岩)

사기점 서북쪽 명덕천변에 있는 바위이다. 크고 넓어 들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고개(馬峴), 연릉안고개

두리동에서 화현면 지현리 연릉안(연릉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산등을 가로질러 넘는 고갯길이 잘록하게 패어 길 모양이 말의 등을 연상하게 하고 고개가 가팔라서 넘어가던 말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고개라 하며 연릉안으로 넘어가는 고개이어서 연릉안고개라고도 부른다.

■버들고개

두리동에서 유동리 선달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범바위

이피리고개 입구 샘물내기 옆에 있는 바위이다. 범처럼 생긴 바위이어서 범바위가 되었다고도 하고 또는 밤이면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앉았다고 하여 범바위가 되었다고도 한다.

■쇠고개

정자골에서 비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새로 난 고개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새고개가 변음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장바위

땀바위골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말 안장처럼 생겨서 안장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용바위

늘발골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모양이 용처럼 생겼다고 하여 용바위가 되었다.

■정자터

정자동 중앙에 있는 정자터이다.

■차돌고개, 화현고개

두리동에서 화현면 화현리 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차돌이 많아서 차돌고개가 되었으며 된차돌고개와 늦은 차돌고개 있다. 또한 화현리로 넘어간다고 하여 화현고개라고도 부른다.

■풀떡고개, 훌떡고개

사기점에서 영중면 금주리 닥밭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닥밭으로 넘어가기가 힘도 안 들고 아주 쉽게 넘을 수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형제고개, 성주고개

정자동에서 꼭두바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2개가 나란히 있다. 즉 고개를 넘으면 바로 또 고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형제고개라 이름지었다고 하며 또한 고개정상에 성황당이 있었기 때문에 성주고개로도 부른다.

■호암다리(虎岩橋)

샛번지와 범바위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범바위로 가는 다리이어서 호암다리라 부르게 되었다.

■용호동고개

바자골에서 유동리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용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고개, 윗고개

바자골에서 시궁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매봉 위쪽에 있는 고개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고 아래쪽에 있는 고개는 아랫고개라 부른다.

■ 샘물내기, 냉천소(冷泉所, 冷泉穴), 아갈바위샘

이피리고개 입구 범바위 밑에 있는 샘물이다. 사철 수량이 풍부하고 오고가는 행인들이 쉬어가면서 마시던 샘물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샘물이 나오는 바위 부분의 모양이 아가리(입)같이 생기어서 아갈바위샘이라고도 부르며 도로 확포장시 없어졌다.

□ 지명 유래 제보자 : 이정옥(69세), 김백겸(67세), 양운서(48세)

2. 유동리(柳洞里)

가. 연혁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유동리(柳洞里)이다. 버드나무가 많았으므로 버들골 또는 유동(柳洞)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기산리(機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유동리(柳洞里)라 하고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 편입하였다.

나. 지명 유래

마을

■ 구룡동(九龍洞)

원통벌 위에 있는 마을로 구령고개 밑이 된다. 구령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벌말

버들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벌판에 있는 마을이어서 벌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 선달재

버들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이고 고개 이름이다. 두리봉 아래가 된다.

☞ 양지편

용호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바른 마을이어서 양지편이라 부르게 되었다.

☞ 용호동(龍虎洞)

양지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세가 청룡과 맹호가 잘 짜인 형국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원 유씨(昌原俞氏) 형조판서의 묘가 있다.

☞ 원통이

구령고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원통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원통이라 부르게 되었다.

☞ 관돌모퉁이

원통이에서 기산리 관돌로 돌아가는 모퉁이의 마을이다. 모퉁이 마을로 고인돌이 있었기 때문에 관돌모퉁이라 부른다.



관돌모퉁이

☞ 버들골, 유곡(柳谷)

선달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유동1리 전체를 말한다.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들

☞ 고지, 고디번댕이

원통이 남쪽에 있는 들로 지형이 높기 때문에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 대골

고디 남쪽에 있는 들이다.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매우 좁은 논들이다. 그래도 주위에서는 제일 큰 골짜기이고 논도 1등답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원통벌

원통이 앞에 있는 들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산

■ 원통산

원통이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원통폭포가 영평8경에 빠진 것이 원통하다고 하여 원통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가는골

진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좁고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광평산(廣平山), 팽팡산

원통이 북쪽에 있는 산이다. 산등성이 정상을 유동에서 보면 뾰족하나 화현쪽에서 보면 매우 넓고 평평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느더리골, 세계골

구렁고개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안에 있는 논이 물이 무척이나 귀하다고 한다. 이 논에 모를 내게 되면 온 세계가 풍년이 든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 대추나무골

버들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추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대추나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두둑발골

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상 조그만 둔덕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으로 생각된다.

■ 두란지

원통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롱뇽이 많았고 이 지역에서는 해가 제일 먼저 든다고 한다.

■ 무시골

버들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 골짜기로 사람이 다니기가 아주 편한 지형이어서

서 하루에 몇 번이고 수시로 다닐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범새골

자갑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병무골

자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골

움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초가 많아서 땀감으로 가을이면 풋장을 쳐 말리고 겨울이면 마른 풀나무를 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절골

원통폭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로 지은 절이 있었다고 하여 새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시누골

용호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음터골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자갑골

지바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골

용호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골이라 부른다.

지바위골

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골

광평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버들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타

원통폭포

원통이 동쪽 원통산에 있는 폭포이다. 경관이 수려한 폭포이다. 영평8경에 빠진 것이 원통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는 아이가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도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며 또한 일설에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이 마치 원통형의 기둥 같다고 하여 부르게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폭포 위 암벽에 대자로 圓通瀑布라 암각한 글씨는 봉래 양사언 선생의 필적이라 한다.



원통폭포

구렁고개(九龍峴)

원통벌 위에 있는 고개이다. 9마리 용이 살았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두리동고개

선달재에서 길명리 두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두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자고개

용호동에서 길명리 바자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바자골로 넘어가는 고개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삼박고개

버들골에서 구렁고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아랑고개

용호동에서 쑥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아주 작고 평탄한 고개이다.

원통고개

원통이에서 가평군 하면 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통산 줄기로 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 지명 유래 제보자 : 박선남(69세)

3. 기산리(機山里)

가. 연혁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기산리(機山里)이다. 지형이 벼를 처럼 생겼다고 하여 틀미 또는 기산(機山)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기산리(機山里)를 분할하여 일부를 유동리(柳洞里)로 넘겨주고 남은 면적을 그대로 기산리(機山里)라하여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 편입하였다.

나. 지명 유래

마을

샘말

권돌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이 태조가 함흥을 왕래 하실 때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근처에는 물이 없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물을 떠다 드렸다고 하여 샘말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돌, 관돌

말미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길고지, 질고지

말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흙이 질고 일동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풍양조씨(豐壤趙氏) 증영의정 이조판서 조진관 선생의 신도비가 서있다.

나분돌(廣坪)

지금의 일동 시가지를 비롯하여 일동초등학교 부근 전부를 이르는 마을이다. 들이 넓다 하여 나분돌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나분들의 변음인 듯하다.

진사래, 장주(長州)

거물개봉 너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수입천을 동쪽에 두고 한 줄로 길게 늘어선 형태이어서 장주가 되었고 또한 이랑이 무척 긴 밭이 있어서 진사래라 부른다고 한다.

말미, 마산

틀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말철럼 생겨서 마산이라 부르고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배리, 아곡

말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셋말(間村)

배리와 고인돌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부락이어서 셋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생이, 사양이, 사양리

틀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 아갈바위의 샘물이 수량도 많고 한양 동소문 밖으로 가는 제일 좋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오고가는 행인이 물을 마시며 쉬어 가는 곳이였다. 이 샘물이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여산송씨장지수구(勵山宋氏葬

地水口)이다.

소야(蘇野)

나분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약재인 소엽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명우리에서 농부가 밭을 갈길 때 소가 멍을 벗어 던지고 이곳으로 뛰니 농부가 소를 따라 뛰면서 소야라고 외쳐대어 소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틀미

고인돌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벼를처럼 생기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위틀미, 아래틀미, 벌틀미가 있다.

청계

나분돌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청계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방촌

소야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6·25이후 영세민이 집단 거주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들

청계벌

청계에 있는 들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산

색시골

금작골 뒤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나물을 하러 간 색시가 이곳에서 호랑이에 게 잡혀 먹히었다고 하여 색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장파골

아장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넓은 골짜기로 옛날에 장이 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거작골

황해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거물개봉

진사래 남쪽에 있는 산이다. 거물개처럼 생긴 산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거물개봉

● 금작골

송추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논이 있는 골짜기로 새가 많아 가을이면 새를 많이 쫓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돼지산소

길고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판서를 지낸 조성하 선생 묘역에 있는 양마석(洋馬石)을 아이들이 돼지같이 보고 돼지산소라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벌능

차작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씨네 묘가 있는 곳이다. 크고 잘 치산한 정판서의 묘가 있는 아래쪽 평평한 구릉지이어서 벌능이라 부르게 되었다.

● 송치골, 송추골

싸리고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나무가 많았고 가파른 골짜기이기 때문에 송치골이 되었고 또한 소나무가 많고 산봉우리가 매우 뾰족하기 때문에 송추골이 되었다고 한다.

● 차작골

소야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목을 매어 죽은 여인을 이곳에서 찾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칙나무골

청계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칙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화전밭골

송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전밭이 있던 골짜기이어서 화전밭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황해사골

금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황해도민 소유의 산이다.

개울, 보

■ 배리개울

배리 앞에 있는 개울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 청계개울

청계에 있는 개울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기타

■ 청계소, 지계미소

쑥고개 아래에 있는 소이다. 청계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 조대비 산소를 쓸 때 지관이 이 소가 메워지면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고 하였다 한다. 소가 매몰되어 춘천으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 왼손돌이소

대원사가 있는 골짜기에 있다. 왼손쪽으로 돌아가 있는 소라고 하여 왼손돌이소라 부르게 되었다.

■ 길마고개, 길마재

청계에서 가평군 하면 상판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소에 짐을 싣는 길마처럼 생겨서 생긴 이름이다.

■ 노채고개

청계에서 가평군 하면 상판리 노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노채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하여 노채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 동통바위

소야 동북쪽에 있는 바위로 동통처럼 생겼다고 하여 동통바위라 부른다.

※ 마당바위

청계 중앙에 있는 바위이다. 마당처럼 넓은 바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 이 바위에서 탈곡도 했다.

※ 배리다리

배리 앞에 있는 다리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 쓰리고개

나분돌에서 화대리 운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쓰리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는 옛날에 소가 풀을 뜯어 먹으라고 고삐에 바를 연결하여 맏다가 이 고개에서 바를 사리었다고 하여 사리고개가 쓰리고개로 변음 되었다고도 한다.



쓰리고개

※ 쑥고개

배리에서 청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아장고개

길고지에서 소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린애도 아장아장 걸어넘을 수 있는 얇고 편편하고 밋밋한 고개이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 유원지저수지

청계 앞에 있는 저수지이다. 여름에 많은 사람이 놀러오기 때문에 유원지저수지라 부른다.

※ 일동시장

나분돌에 있는 시장이다. 5일장으로 일동면 소재지에 서는 장이어서 면 명칭을 따서 부르고 있는 이름이다.

진고개

길고지에서 소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징고개

소야에서 말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진흙땅이어서 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청계벌다리

청계벌에 있는 다리이다. 벌판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덕고개

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지명 유래 제보자 : 송영진(82세), 심한섭(74세), 정병규(74세), 이병걸(68세),
김학조(63세), 채인석(60세)

4. 화대리(禾垓里)

가. 연혁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화대리(禾垓里)이다. 역마를 먹이던 곳이므로 수터, 쉼터 또는 수대, 화대, 수기, 휴기라 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영평군 일동면 사당리(社堂里) 일부와 수입리(水入里) 일부를 병합하여 화대리(禾垓里)라 하고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 편입하였다.

나. 지명 유래

마을

마곡, 마고동

싯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고령 고개 아래가 된다. 옛날에 삼을 많이 심었던 곳 이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무른대미, 운담(雲潭)

싯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암 김평묵 선생도 이 마을에서 사시었다. 중암 선생이 사시는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는 금주산, 무리울산, 이장산에 둘러 쌓여 있는 곳으로 안개가 자주 끼며 그 안개 모습이 큰 연못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운담

무리울, 무리곡, 무리동

지청동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맑고 깨끗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마을이라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 한다.

사기막

무른대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사기점이 있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원부리, 맥구(麥丘)

싯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비스듬한 구릉 형태의 마을로 밭에 모두 보리만 심어서 온통 보리밭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궁예가 왕건에게 쫓길 때 강씨봉에 있는 궁예왕비 강씨에게 이 마을에서 보리를 진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지청동(芝靑洞)

한나무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무리울에서 흘러내려 오는 맑은 물을 받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물도 맑고 풀도 청아해서 당초에는 지청동(池靑洞)으로 불리었다고 하나 지금은 지청동(芝靑洞)이라 부르고 있다. 또는 심씨네 제청(祭廳)이 있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 한나무골(多木洞)

사기막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나무가 많은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슷터

운담초등학교를 지나 언덕 너머 좌측에 있는 마을이다. 이성계 장군이 함흥 땅을 오고 가면서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하여 쉼터라 부르게 되었으나 이 말이 변음되어 슷터가 되었다고 한다.



들

▶ 참물둔지

폭포수 동쪽에 있는 들이다. 물이 차기로 유명한 큰 우물이 있었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듯하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 우물이 있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산

▶ 갈비대골

목매달아죽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능선이 여러개로 그 형상이 깡말라 보이며 양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고비골

참물둔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비가 많이 나는 골짜기이어서 고비골이 되었다고 한다.

▶ 고추당골

무리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너레바위골

너레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너레바위가 있는 골짜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논골

지청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짜기 안에 논이 있다. 골 논이고 물이 아주 흔하며 이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논이므로 논골이 되었다고 한다.

■ 느티나무골

애기산소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느티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목매달아죽은골

느티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 곳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 무당골

원부리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무당 집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밀밭골

조드리미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입구에 밭 한피기가 있다. 토질이 척박하여 매년 호밀만 심었다고 하여 밀밭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보골

원부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보도랑이 흐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보도랑이 흐르는 큰 골짜기를 큰보골이라 부르고 보도랑이 흐르는 작은 골짜기를 작은보골이라 부른다. 큰보골은 사직리에 소재 한다.

■ 불당골

양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비낭골

사기막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험하고 돌이 많으며 비탈이 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삼발골

한나무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삼을 많이 심었던 곳이어서 삼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애기산소골

사기막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흙이 좋고 파기가 좋아서 옛날에 애기가 죽으면 으레 이곳에 묻었기 때문에 애충이 많아서 애기산소골이 되었다.

양무골

무른대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입구에 약물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약물골의 변음으로 생각된다.

어사리골

텃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리골

섯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오리나무가 가득해서라고도 하고 또는 골짜기의 길이가 오리가 된다고도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조드리미골

너리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는 모두 조씨의 묘와 비석뿐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무른대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는 묘도 많고 또한 묘 자리도 좋다고 한다. 옛날에 득세하여 살고 있는 이씨네가 묘를 쓰려고 한 자리 보아 두었다고 한다. 주위에 많이 살고 있는 나씨네가 텃세를 부리면서 이 자리에 묘를 먼저 썼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폭포밀골

어사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위쪽에 폭포가 있어서 폭포밀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소막골

자운데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골짜기를 큰소막골이라 부르고 작은 골짜기를 작은소막골이라 부른다.

목재골, 목장골

지청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토질이 비옥하여 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민가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관아에만 사용하였다고 한다. 큰목재골과 작은목재골이 있다.

후곡

무리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리울 마을 뒤에 있기 때문에 후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강아지골

지청말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 늑대가 많이 서식 하면서 새끼를 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늑대 새끼를 잡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새끼를 잡지 않으면 늑대 피해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 없었다고 한다.

개울, 보

보골개울

보골에 있는 개울이다. 골짜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기타

강씨봉고개

무리울에서 가평군 북면 적목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강씨봉에 있는 고개여서 강씨봉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강씨봉고개

■마구령이고개, 마고령

췌터에서 마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에 삼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중암 김평묵 선생의 묘가 있었으나 화장을 했다.

■너레바위

양무골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넓은 너러바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둔지저수지

지청동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운담의 어원이 되는 연못 자리에 왜정 때 새로 축조한 저수지이다. 둔덕 위에 있는 저수지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근덕고개

운담에서 원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흙 빛이 붉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약물터

갈비대골 북쪽에 있는 약물터이다.

■운담교

무른대미(雲潭) 앞에 있는 다리로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다리 이름이다.

■폭포수

어사리골 동쪽 골짜기인 폭포밑골에 있는 폭포이다.

□ 지명 유래 제보자 : 구봉식(83세), 구장식(72세), 김유창(67세), 나득현(52세)

5. 사직리(社稷里)

가. 연혁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지역이다. 사당이 있었으므로 사당말 또는 사직동, 사직이라 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일동면(一東面) 사당리(社堂里) 일부와 수입리(水入里) 일부를 병합하여 사직리(社稷里)라 하고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 편입하였다.

나. 지명 유래



마을

■ 뱀말, 배말, 배안말, 인곡

조치미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궁예왕비 강씨가 강씨봉에 피란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배알을 하고 원부리에서 보리를 진상하였다고 하여 뱀말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배가 떠 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배말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배의 안쪽 같이 생기었다고도 하여 배안말이라고도 부른다. 배의 형국이어서 배가 풀리면 침몰한다고 하여 옛날에는 우물을 파지 않고 자연 유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 새터(新基)

뱀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새터라 부르게 되었다. 요즘은 유황 온천이 개발되어 있다.

■ 장아리

이장산 동쪽 장아리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조치미, 조산

사당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침산(朝針山)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앵바위

이장산 서쪽에 있는 마을이고 또한 바위 이름이다. 옛날 이 바위 옆에 보를 내려고 가래질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가래 끝에 피가 묻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비둘기가 날아오르고부터는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많은 애가 죽었다고 하여 애바위라 불렀으나 후에 앵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앵바위 또는 양암동(洋岩洞)이라 부르는 바 양암동은 물 옆에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앵바위

■사당말

조치미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사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들

■지게비

사당말 서북쪽에 있는 벌판이다. 일동과 이동의 경계가 된다. 들이 넓기 때문에 여름이면 일꾼도 많았다. 일꾼들이 벗어 논 지게가 벌판에 여기저기 무척이나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안지게비와 바깥지게비가 있다.

■새능골

조치미에서 연곡리로 가는데 있는 논고래이다.

■속개들

구랭이집터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앵바위소 옆이 된다.

■ 지둔지

지게비 옆에 있는 논들이다.

■ 활터들

활터고개 앞에 있는 들이다.

■ 신관평, 신관이들, 신관이벌

앵바위 앞 서쪽에 있는 들이다. 일동에서 제일 넓은 들이다. 새로 개간한 들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신간평(新墾坪)의 변음인 듯하다.

산

■ 갯바위등

도성고개 동북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갯바위가 있는 산등성이어서 갯바위등이라 부르게 되었다.

■ 노개골

조치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확 트이고 흰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 늘바위골

성주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늘바위가 있는 골짜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더령골

노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덜렁 들려 있는 모양의 바위가 이 골짜기에 많기 때문에 더령골이 되었다고 한다.

■ 배나무골, 돌배나무골

흰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 함지박골

백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치 함지박같이 생긴 바위가 드문드문 여러개 있는

골짜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성주골

더령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골짜기를 큰성주골이라 부르고 작은 골짜기를 작은 성주골이라 부른다.

■ 슬종지골

도성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흰바위골

도성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흰바위가 있는 골짜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앞뒤편

이장산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이 바로 마을 앞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약수골

조치미 동쪽 도둑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약수가 있기 때문에 약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웅장골

복구이폭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이장산(狸藏山)

앵바위 뒤에 있는 산이다. 골짜기가 없는 한 봉우리의 산으로 사방이 모두 마을이어서 짐승이 한 번 들어가면 마을에 막혀 못 나온다고 한다. 이 산에 있는 많은 살쾡이가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장산

❧ 섯발골

백말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아리산

이장산 동쪽에 있는 산이다. 장아리에 있는 벌판 끝까지 뻗어 있는 산이어서 마을 이름을 따 지은 이름으로 생각된다.

❧ 제장초골

백말 뒤에 있는 골짜기로 산제를 지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조침산, 문필봉

조치미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봉우리가 뾰족하게 생긴 산이다. 아침에 해가 반쯤 떠올랐을 때 보면 산봉우리가 반짝반짝 바늘처럼 보인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근래에는 붓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하여 문필봉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 활거르니

조침산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등성이가 활처럼 생기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활터골, 고사골

약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활터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 개울, 보

❧ 장지내

이장산 남쪽에 있는 개울이다. 개울이 꾸불꾸불 아주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기타

❧ 가운데고개

조치미에서 도성고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여러 고개 중 가장 가운데 있는 고개라고 하여 가운데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 가칠고개

백말에서 조치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감투바위

앵바위 옆에 있는 바위로 감투처럼 생겼다고 하여 감투바위라 부른다고 한다.

■ 갯바위

도성고개 동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모양이 갯처럼 생긴 바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렁이집터, 돌담불자리

앵바위 서쪽에 있는 논이다. 구렁이가 많았고 또한 돌담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렁이가 나오기만 하면 비가 왔다고 한다.

■ 늘바위

성주골 서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 도성고개

백말에서 가평군 북면 적목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궁예왕비인 강씨가 강씨봉에 피란했을 때 흙으로 성을 쌓은 곳이라고하여 토성고개로 불려왔으나 후에 도성고개로 변음되었다고 한다. 또는 이 고개에 있는 성이 태봉국의 도성을 막는 성이라고 하여 도성고개가 되었다고도 한다.

■ 북고개

도성고개에서 백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북구이고개라고도 부른다.

■ 북구이폭포

조치미 저수지 동쪽에 있는 폭포이다.

■ 선바위

북골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소경놀래

도성고개의 일 부분이다.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길 양쪽이 가파르기 때문에 맹인이 지팡이로 이리저리 두들겨 보아도 갈 수 없어 놀란다고 하여 생겨난 이름이다.

■흰바위, 서방바위

도성고개 동쪽 아래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색깔이 희기때문에 흰바위가 되었고 수태하지 못하는 여성이 이 바위 가루를 먹으면 임신이 된다고 하여 서방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바위를 간 흔적이 있다.

■우렁소

솔종지골 북쪽에 있는 소(沼)이다. 상당히 큰 소로 4면이 석벽이다. 물이 소로 떨어질 때 돌벽이 울리면서 소리난다고 하여 우렁소가 되었다.

■우렁소구름

솔종지골 북쪽에 있는 계곡이다. 우렁소가 있기 때문에 부르게 된 이름이다.

■장아리고개

장아리에서 사당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아리에서 넘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치미저수지

조치미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로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평풍바위

북골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병풍처럼 생겨서 평풍바위라 부르고 있다.

■활터고개

사당말에서 이동면 연곡리 제비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꽃밭둔지

조침이 동남쪽에 있는 둔덕이다. 봄이면 진달래꽃이 많이 피어서 생긴 이름이다.

□ 지명 유래 제보자 : 유진서(70세), 박영원(69세), 차윤태(60세)

6. 수입리(水入里)

가. 연혁

1912년 행정구역으로 영평군(永平郡) 일동면(一東面) 수입리(水入里)이다. 갈기 또는 가계라 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 때 수입리(水入里)를 분할하여 일동면(一東面) 화대리(禾垓里)와 사직리(社稷里)로 일부씩 넘겨주고 일동면(一東面) 산내지리(山內之里)를 병합하여 포천군(抱川郡) 일동면(一東面)에 편입하였다. 수입천과 영평천이 모두 들어오는 것만 보이고 나가는 곳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입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 지역인 수입리(水入里) 일부가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6·25 때 실지(失地)를 회복하여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行政權)이 이양 되었다.

나. 지명 유래

마을

■산내지, 새내지

아래갈기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골짜기 마을이므로 산내지가 되었다고 한다. 산내지가 변음되어 지금은 새내지라고도 부르고 있다.

■가계(佳溪), 갈기

금주산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흐르는 개울물이 아름답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윗갈기(上佳溪), 가운데갈기(中佳溪), 아래갈기(下佳溪)가 있다.



산내지

■ 곰네미, 웅현동(熊峴洞)

아래갈기와 가운데갈기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곰이 넘어 다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바깥말

새내지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위치적으로 마을의 바깥쪽에 있는 부락이어서 바깥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 안말

새내지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내지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마을이어서 안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연대끼

아래갈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8사단 21연대가 주둔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곰네미들

곰네미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 닥나무들

윗갈기 앞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 닥나무가 많아서 닥나무들이라 부르게 되었다.

■ 새둔지벌, 활터

아래갈기 북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 새가 많이 모여드는 둔덕이었다. 이 둔덕 위에 있는 조그만 들이어서 새둔지벌이라 부르게 되었고 또는 활터가 있었기 때문에 활터라고도 부르고 있다.

■ 무드리

윗갈기 남쪽에 있는 들이다.

방개골

곰네미 북쪽에 있는 들이다. 큰 방죽이 있었다. 이 방죽에 방개가 많았기 때문에 방개골이 되었다고 한다.

산

가는골

횃가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가늘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깃대봉

새내지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세부 지적 측량을 위하여 깃발을 꽂았던 곳이어서 깃대봉이 되었다.

뒷골

아래갈기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어서 뒷골이라 부르고 있다.

마르태기

절골 서쪽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이 주위에서는 제일 높은 등성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나리골

곰네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영중면 금주리 무나리로 넘어가는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피골

아랫갈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골

윗갈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고 하여 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짚뚜기

가운데갈기 서쪽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짚뚝고개 정상을 말한다. 짚뚝하게 생겨서 짚뚜기라 부르게 되었다.

■사래골

윗갈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래골

윗갈기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여서 아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곰네미골

새내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곰네미골과 작은곰네미골이 있다. 옛날 마을에 곰이 나타나서 사람이 쫓아갔다고 한다. 이때 곰이 산으로 도망을 쳐서 큰 곰이 넘은 골짜기를 큰곰네미골이라 부르고 작은 곰이 넘은 골짜기를 작은곰네미골이라 부르고 있다.

■횃가마골

곰네미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횃들을 구웠다고 하여 횃가가골이라 부르고 있다.

■큰골

아래갈기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산에서 제일 큰 골짜기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둥그미골

가운데갈기 뒷산의 골짜기이다. 모양이 둥그미처럼 둥그렇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른골

가운데갈기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둥그미골 바로 옆 골짜기가 된다. 매우 넓은 골짜기이어서 너른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배나무골

가운데갈기 뒤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개울, 보

■가르터개울

가운데갈기 동북쪽에 있는 개울이다.

■ 뒷개울

가운데갈기 뒤에 있는 개울이다. 마을 뒤에 있는 개울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내지보, 백정의보

새내지 북쪽에 있는 보(湫)이다. 새내지 앞에 있는 보라하여 새내지보가 되었고 또는 백정이 막은 보라하여 백정의 보라고도 부른다.

기타

■ 짚뚝고개

가운데갈기에서 영중면 문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정상에 움푹 들어가 짚뚝하게 생겨서 짚뚝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 굴바위

새내지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밑에 굴이 있어서 굴바위라 부르고 있다.

■ 무나리고개

새내지에서 무나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무나리로 넘어가는 고개이어서 무나리고개라 부른다. 무나리에서는 이 고개를 새내지고개라 부른다.

■ 삼거리다리

윗갈기 앞에 있는 다리이다. 삼거리에 놓은 다리이어서 삼거리다리가 되었다. 지금은 포장도로 위에 교량을 가설하여 운담교라 부르고 있다.

■ 수리바위

새내지 동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독수리가 해마다 새끼를 치던 바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약물바위

와룡암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밑에서 약물이 나오기 때문에 약물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 옷나무우물

아랫갈기 중앙에 있는 우물이다. 옛날에는 옷오른 사람에게 효험이 있는 약수였다고 하나 후에 우물로 사용되었다. 또한 우물 옆에 큰 옷나무가 있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 와룡암(臥龍岩)

산내지 동쪽 영평천과 수입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하류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바위가 누워 있는 용의 형상이라고 하여 와룡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상체는 수면 위에 떠 있고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길이가 50여m로 물에 잠겨 있다. 상반신은 수면 위에 떠 있다가 물이 차츰 줄면 용신(龍身)이 나타나서 마치 승천하는 용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한다. 영평8경의 한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의 큰 홍수 때 수해를 막기 위하여 애석하게도 파괴되어 지금은 없다.



와룡암(자리)

■ 평촌교, 삼팔교

아래갈기에서 이동면 노곡리로 건너가는 다리이다. 별판에 있는 다리이어서 평촌교가 되었고 북위 38도 선이어서 삼팔교라고도 부르고 있다.

■ 행상바위

아랫갈기 뒤편에 있는 바위이다. 상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구룡소

산내지 남쪽에 있는 소(沼)이다. 9마리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 여우둔지

배나무골 옆에 있는 둔덕이다. 여우가 애충을 많이 파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 지명 유래 제보자 : 김윤배(76세), 이기동(76세), 이순근(72세), 최덕모(70세)